

## 자가 콜라겐주입술을 이용한 성대구증환자의 치료

최홍식 · 이준협\* · 정유삼 · 임영창 · 김광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음성언어의학연구소

성문부폐쇄부전(glottic insufficiency)을 수술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형태(silicone, hydrogen gel, teflon, etc.)의 성대이물주입술, 갑상성형술등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문부폐쇄부전은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여기에 1995년 Ford 등은 성문부폐쇄부전에 이은 음성장애치료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자가 콜라겐주입술(autologous collagen injection)을 소개하였다.

저자들은 기식성 애성을 주소로 연세의대 안·이비인후과병원을 내원한 환자 중, 치료법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한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1997년 11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자가 콜라겐주입술을 시행하여 치료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술전과 시술후 5개월에 성대화상술 검사, 공기역학적 검사, 음향분석학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수술후 언어치료사에 의한 목소리 평가와 환자의 주관적인 목소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수술 전과 비교하였다.

분석가능한 결과는 4명이었는데, 성대화상술 검사에서 모든 환자에서 술전에 비해 chink의 크기가 감소되어 관찰되었지만 여전히 chink는 관찰되었다. 공기역학적 검사 결과, 평균호기류율(mean flow rate, MFR)에서는 2명(50%)에서 임상적으로 의미있게 감소되어 호전되었고 2명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최장발성지속시간(maximum phonation time, MPT)은 모든 환자에서 변화가 없었다. 음향분석학적 검사 결과, 임상적으로 호전된 양상은 없었다. 수술후 목소리 변화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결과에서는 2명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고, 나머지는 각각 무변화와 악화로 평가하였다. 언어치료사에 의한 술후 목소리 평가에서는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결과와 비교적 일치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주입후, 후두경련, 호흡 곤란등의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자가 콜라겐주입술은 성문부폐쇄부전의 이상적인 치료법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가 아직 진행중인 단계이고, 이번 연구의 한계점인 짧은 추적관찰기간과 적은 표본을 고려할 때, 이번 결과만으로 자가 콜라겐주입술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